

전북대, 피지컬AI 국가 실증사업 주관기관 선정

세계 최고 수준 피지컬AI 밸리 조성

총 1조원 규모... 국가 미래 기술주권 선도

네이버·현대차·카이스트 등과 협업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정부가 공모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총 1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 '피지컬AI' 실증사업의 대상으로 전북을 최종 발표했다.

피지컬AI는 물리적 동작이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으로, 생성형 AI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실증사업으로, 전북대는 기획부터 실증, 인재양성,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대한민국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21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북대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을 견인하는 전진기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협업지능 피지컬AI, 전북대가 여는 새로운 길

전북대가 조성할 피지컬AI 실증 거점의 핵심은 '협업지능 피지컬AI'다. 기존의 피지컬AI가 개별 장비나 휴

머노이드 로봇에 AI를 적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전북대는 공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장비·로봇으로 보고 AI를 적용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공장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파운데이션 모델, 공장 시뮬레이션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방식이 구현되면 공장 전체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고, 전북대는 이를 '협업지능 피지컬AI'라 명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대는 교내 1천여 평 규모의 로봇 기반 실증 공간을 마련해 산업용 로봇 AI 기술 개발과 테스트 랩으로 활용한다. 이어 내년부터 전북대 부지에 5만5천 평 규모의 피지컬AI 전용 캠퍼스를 조성한다. 현대차·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연구소와 전북대 산업용 로봇 AI랩이 집적화된 세계 최고 수준의 '산학연 피지컬AI 밸리'가 이곳에서 태어난다.

특히, 전북대는 카이스트, 성균관대와 손잡고 국내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리빙랩을 공동 운영한다. 각 대학의 장점을 결합한 공동 교육 플랫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 22일, 총 1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 '피지컬AI' 실증사업의 대상으로 전북을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피지컬AI SW 플랫폼 연구생태계 조성 사업추진단 발족식.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을 설계해 융합형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 교과목 개설·학점 교류·AI 캡스톤디자인 등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된 피지컬AI 교육·연구 생태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역 주체들의 협업이 만든 새로운 미래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는 단순히

등의 적극적 지원이 원동력이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임, 전주병)은 국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안에서 빠져 있던 예산 229억원을 2차 추경에 반영시켜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었다.

정 장관은 "전북 피지컬AI 사업은 설계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체계를 갖춘 최초의 국가사업으로, 지난해부터 AI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을 확보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 AI 주권 시대, 전북이 대한민국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피지컬AI 예산 반영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투자촉진형 재정 사업 등과 연계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대는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피지컬AI 생태계를 설계하고 실증하는 총괄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전북대가 주도하는 피지컬AI 혁신은 이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주권을 선도하는 대항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은성 기자



ESG 실천가게 현판 수여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일 5층 회의실에서 지역상인과 함께하는 ESG 실천가게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ESG 실천가게에 동참하는 곳은 분청 인근 카페 및 음식점 12곳으로, 이들은 지역사회의 친환경 소비문화와 사회적 책임 실천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탠다.

ESG 실천가게 모집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12곳이 전북교육 ESG 실천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ESG 실천가게의 주요 실천 영역을 살펴보면 카페는 텀블러 지참 시 가격 할인과 생분해 빨대(컵) 사용, 지역농산물 이용, 장애인 고용 등이며, 음식점은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과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ESG 실천가게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가게"라며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실천가게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활용 시설 과목 개발 사례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시설 과목 개발 사례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 학교가 지역·학생 요구에 맞춰 국가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이날 연수는 학교자율시간 안착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도내 중학교 교감과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 승인 과목 개발 과정과 실제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사례 △2026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육감 승인 과목 안내 △학교자율시간 시설 과목 개발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매칭 지원 안내 등이다.

연수 참가자들에게 교육과정 모음 자료집을 제공,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개발 방안을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재무과 청렴 디지 릴레이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가 '고위직이 함께하는 Fun-Fun한 2025년 청렴 디지 릴레이' 17번째 주자로 나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된 청렴 릴레이는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자발적 청렴 문화를 도모하고, 릴레이 방식의 청렴 메시지 전달을 통해 청렴 의지 공유 및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22일 재무과에 따르면 이날 최선자 과장을 중심으로 전 부서원이 참여한 가운데 '춤추는 경리업무', '뽕뽕한 계약관리', '정직한 재산관리' 등 3부작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경리담당, 계약담당, 재산담당 등 3개 팀이 '춤춤 뽕뽕 정정하게, 청렴 함께 지켜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장은성 기자

자유전공학부 정원 확대

전주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서 176명서 196명으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 176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대학이 1년간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전주대는 1학기 동안 집중적인 전공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2학기부터 희망 학과에 배정된다.

또한, RC(Residential College)교육을 도입했다. 1학기 동안 신입생들은 사제 동행 지도교수, 선배학생멘토, RC지원교수, 진로지도사로 구성된 RC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감과 소속감이 한층 강화됐고, 자유전공

학부 신입생의 100%가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배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자유전공학부 정원을 기존 176명에서 196명으로 20명 증원키로 했다.

이근호 입학처장은 "전주대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와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학생 중심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진로선택과목 중심 전형인 '달란트전형'을 신설, 수시모집에서 2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전북교육청, 올 청렴 콘텐츠 공모 수상작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청렴'으로 도약하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총 270편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숏폼 영상 20편 △포스터(슬로건) 214편 △이모티콘 15편 △포스터 21편 등으로, 이 중 심사를 통해 최종 20편을 선정했다.

각 분야 최우수작으로는 △숏폼 영



전북대학교가 지난 22일 삼성문화회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한 가운데, 재학생들이 졸업생의 졸업을 축하해주고 있다.

"졸업생 여러분들의 비상, 건지벌에서 시작되길"

전북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1572명 새출발 양오봉 총장, 졸업식사 서두서 시 시대 도전·열정 강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2일 삼성문화회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분부 보직자와 학무위원, 역대 총장단, 최병선 총동창회장, 졸업생과 학부모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사 177명, 석사 434명, 학사 961명 등 1,572명에게 각각 학위가 수여됐다.

또한 원대원 학생(공과대학) 등 89명이 우수졸업생으로, 박시아 학생(인문대학) 등 17명이 핵심인재상 수상자로, 배덕 이쉬러 학생(박사과정) 등 50명이 우수연구 학생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졸업식사 서두에서 스페인 통치에 맞서 항쟁을 이끈 페루의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칸키를 기억하며 "위대한 영웅들이 콘도르칸키처럼 태어나 장공을 날아오르듯, 오늘

졸업생 여러분의 비상도 이곳 건지벌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AI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사회 변화를 읽는 안목을 강조했다.

또한 "거친 파도를 넘어 도전하는 사람만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바람이 거셀수록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무적함대처럼 'Anything is possible!' 전대인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 총장은 "여러분의 모교 전북대를 잊지 말고, 글로벌 명문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보내 달라"며 "서둘러 10개 만들기 사업과 '피지컬 AI 사업'을 유치해 세계 Top 100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HUSS 융합캡트 통해 인문사회·기술 인재 역량 강화

전주대학교 HUSS사업단(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2025 HUSS 융합캡트(인사이트)'에 참여, 인문사회·기술 창의 인재 역량을 강화했다.

지난 22일 전주대에 따르면 HUSS 융합캡트는 지난 7월 경주에서 열린 '2025 HUSS 아카데미'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개 컨소시엄, 50개 대학이 참가해 △HUSS 헤커톤 △HUSS AI 경진대회 △HUSS 숏폼 공모전 등 인문사회와 정보기술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발굴에 나섰다.

이에 HUSS 숏폼 공모전에서 역사콘텐츠학과 김남호(24학번) 학생과 영어영문학과 김규민(24학번) 학생이 출품한 '전주문화산책'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장은성 기자